

김은경 “계파는 갈등 아닌 다양성... 개딸과도 소통 중요”

〈강성 지지층〉

민주 혁신의 한달...계파들끼리 소통 잘하면 당내 민주주의에 긍정적 국민 원하면 총선 공천률 손보기 가능...문제점으로 '온정주의'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일 “계파는 갈등이 아니고, 계파가 있어서 다양성이 있다면 그것처럼 건강한 민주주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가동됐던 이유도 다 계파 갈등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계파 갈등이 오히려 혁신을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계파들끼리 잘 소통만 한다면 그렇

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어르신들은 내밀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끌어냈던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선례들을 찾아 (소통을 통해) 갈등이 없어지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춘다면 민주당은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내 계파간 갈등에 대해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라고 경고해온 김 위원장이 계파 존재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면 당내 민주주의

에 오히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층이) 약간 격앙되게 반응하거나 으르렁거리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팬덤의) 지지를 당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소통하는 데 조금 더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며 “결

국은 조금 색깔이 다른 같은 식구”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내년 총선의 ‘공천률’까지 손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전권을 주신다고 처음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다”며 “국민이 원하는 게 다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친명’ (친이재명)계 원외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전날 내년 총선에서 ‘현역 50%·3선 이상 다선 75% 이상 공천 물갈이’를 촉구한 데 대해선 “여러 제안 중 하나일 수 있다”며 “여러 분들이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인적 쇄신이 중요하다”고 하시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 출범 한 달째를 맞은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로 ‘온정주의’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듯한 게 보인다”며 “어떤 일을 대할 때 약간의 온정주의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관리자의 책임으로 그 문제를 빨리 들여다보고 숙고해야 하는데, 한 박자 놓치는 게 문제였던 것 같다”며 “그런 문제는 소위 훈련이 되거나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잡히면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차기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특위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국조·경기도 자체 감사 필요”

민주 진상규명 특위 2차 회의...26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비난을 재개했다. 민주당 ‘대통령 차기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경기도 자체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 차기의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는 아주 간명하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려 했는가”라며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러 여론 조사상 국정조사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안은 접근 원안인 신양평IC를 더한 노선을 확정 짓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 제보를 처음 받았을 때 (종점 변경 의혹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판박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일가,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양평이라는 공간적 배경까지 3대 요소가 같다”고 말했다. 또 “노선 변경 결재자가 공흥지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장이라는 게 밝혀졌다”

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없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종점 변경지인 강상면) 병산리 땅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라 (특혜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지도나 현장 방문으로 아무리 찾아도 못자리는 보이지 않았다”며 “선산 주장마저 거짓이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다음 주 수요일(2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7일 원외총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해당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폭우 피해가 잇따르자 일정을 연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내년 광주 총선 중책 맡아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0일 시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기환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시당위원장 공모에서 주특보가 단일 후보로 나섬에 따라, 시당 대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했다. 주 신임 위원장은 오는 24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이로써 주 위원장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이끌며 2024년 총선까지 치르는 중책을 맡는다. 주기환 위원장은 “현재 1만명인 광주지역 책임당원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중앙당·정부와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가교역할을 통해 광주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가 호남 발전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에서 태어난 주 위원장은 광주지검 수사과장,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지난해 3~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당 후보로 출마해 보수 정당 역대 최다 득표율인 15.9%를 기록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광주 발전 동력 확보”

이용빈 의원 “새 경제지도 그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20일 “소부장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면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국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비범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할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을 삼각축으로 묶어 광산과 광주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가겠다”며 “미래차 소부장 혁신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거점 조성해 줘”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서광주농협 advertisement featuring NH Bank, Visa cards, and various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nd a list of services like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and '햇살론'.